

통일애국의 불이 길에 켜져야 할 기

새해 주체111(2022)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해주신 때로부터 25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 온 겨레는 뜻깊은 올해 조국통일3대현장의 기치높이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현장은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북과 남이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재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자주의 원칙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며 민족통일운동의 출발점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근본리익에 맞게, 우리 민족자재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의 분열은 전적으로 외세가 강요한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이룩하자면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전쟁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재난을 당할것은 우리 민족이다. 민족의 머리위에 드리운 전쟁위험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결정적담보이다. 통일을 이룩하자면 통일을 바라는 모든 민족성원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단결된 힘은 강하며 온 겨레의 하나로 뭉친 힘과 노력에 의해서만 통일의 대문이 열릴수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항구적으로 높이 들고 나아가는데 민족의 통일속진을 이룩하는 길이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로서 여기에는 조국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 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되고 그 진리성이 검증된 과학적인 통일원리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에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방도와 함께 통일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해온 경험, 다방면적인 협상경험,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위한 투쟁경험 등 조국통일운동의 모든 분야에 걸치는 고귀하고 풍부한 경험이 집대성되어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있어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될어나가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반통일세력의 대결정책, 전쟁책동들을 짓부셔버리면서 조국통일3대원칙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갈 때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북과 남, 해외의 동포 여러분!
가슴부부는 희망과 새로운 기대로 끓어넘치는 새해 2022년의 첫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밝은 새해의 이 아침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하루빨리 가시고 자주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줄 신심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열의 고통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어느덧 일흔

신심드높이 나아갑시다

일곱해가 되었습니다.
77년!
이 기나긴 나날 국로량단과 민족분열로 우리 겨레가 당한 고통은 얼마이며 겪어온 불행은 또 그 얼마입니까.
세월은 흐르고흘러 강산은 많이도 변하고 세제도 바뀌었지만 민족분열의 아픈 려사는 계속되고있습니다.
민족분열이 강요하는 고통과 불행이 이제 더는 감수하고 살수 없기에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강렬해지

고있습니다.
지나온 한해에도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공화국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올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해주

신 때로부터 25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마음과 힘을 합칠 때 두려움없고 애고 못낼 일도 없으며 조국통일의 길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훌륭한 조국통일운동력사가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우리 겨레의 자주적인 조국통일운동의 진두에는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겨레와 민족을 가장 뜨겁게, 가장 열렬히 사랑하시며 전체 조선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모두 승리의 신심드높이 이 땅의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그날을 향해 큰걸음을 내딛읍시다.
이것이 희망찬 새해에 부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본사편집국

지난 한해 세 차게 라오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전 민족대 단결 10 대 강령 발표

1990년대에 들어와 조성된 정세는 북과 남이 다같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할 보다 적극적이며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된 얼마후인 1993년 3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소집에 대한 공보가 발표되었다.
세상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놀라며 평화와 자주통일, 민족대단결의 길을 다시금 온 겨레와 세계면전에 명시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전세계에 울려 퍼졌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의 단합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평화

통일의 전도를 개척할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구상하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강령을 한조항한조항 완성하시어 주체82(1993)년 4월 6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총론과 10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총론에는 강령의 기본사상이 천명되어있고 제1조에는 전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가, 제2조에는 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 제3조에는 민족대단결의 원칙,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민족대단결의 방도가 명시되어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그 어떤 계급이나 계층의 리익보다 민족전체의 리익을 찾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킬때 대한 내용으로 일관된 애국애족의 통일강령이며 민족 내부의 대결을 갈장내고 전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이룩할때 대한 민족단합의 대한장이며 호상 존중과 양보의 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민족적원칙에서 풀어나가며 모

든 사람들을 아량있게 포섭하여 민족공동의 번영의 길로 이끌어나갈데 대한 정치대강이다.
1993년 4월 7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토의하고 첫 번째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대단결강령을 채택할데 대하여》에 대한 보고와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세하에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성취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명시한 민족단합의 대한장이며 애국적인 민족공동의 강령으로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환영하였다.
회의에서는 《7천만겨레에 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호소문에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실현하는 여기에 모든 해외의동포들의 본분이

있고 참된 애국이 있다고 하면서 모두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 파감한 실천가가 되어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으며 그들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가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 도에서 진행되고 각 정당, 사회단체들은 성명서와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노래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가》와 《전민족대단결의 노래》가 창작보급되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통일의 큰 열쇠》, 《통일의 지름길》, 《7천만겨레의 오늘과 좌표와 레이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민족통일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본사기자

해외에서는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제일동포들을 대상으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하는 3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범민련 유럽지역조직의 각계각층 대표들의 련환모임에서와 모스크바에서 열린 조선통일촉진위원회(아소크) 제2차대회에서도 단결같이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환영하는 결의들을 채택하고 그 관철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리었다.
참으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선사람이라면 북이든 남이든 해외이든 그 어디에 살고 무슨 사상을 신봉하는 관계없이 서로 손잡고 한데 뭉치는데서 그 어떤 다른 견해도 있을수 없는 완전무결한 단합의 대강, 민족대단결의 체제이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제시됨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모든 조선동포들에게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세월은 가고 추억은 온다고 새해를 맞고보니 지나온 한해가 돌이켜져 감회가 새롭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20여년세월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만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삶의 최절정에서 살고있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무병무탈하여 로망의 장이라고 삶의 절음절을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과 배려는 해가 갈수록 더욱 커만 가고있다.
지난해에도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절세위인을 모시고 제7차 전국로병대회의에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우리는 정쟁로병들을 혁명의 로선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한순간이라도 편히 쉬시우기를 간절히 바랬건만 그이께서는 지난 한해에도 위민헌신의 불멸할 자욱들을 아로새기시었다.

전체 인민에게 새해의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면서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실일편단심 변함없을것을 다시금 맹세한다는 뜻깊은 친필서한을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이다.
그날로부터 시작된 그이의 2021년 위민헌신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 조국은 더 크게 전진하고 승리를 자랑스럽게 떨칠수 있게 되었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 검덕지구에 일떠서는 사상초유의 산악협곡도시, 백두산기술에 한복의 그림자나 펼쳐진 눈부시고 아름다운 산간의 리상도시, 은정어린 첫제품을 받아안고 행복에 웃음짓는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 함경남도 피해지역들에서의 새집들이행사...
혹심한 도전과 장애를 과감히 물리치시며 려사의 기적을 안아오시고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온 나라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설레이는 지난해의 마지막날에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우리시 사회주의발전의 새로운 진로를 밝히는 실천강령을 제시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새해에도 조국은 인민의 리상향으로 더욱 전진되리라는 희망

과 확신으로 하여 벌써부터 마음이 흥분됨을 금할수 없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이다.
사랑에는 보답이 따르기 마련이다.
수십년간의 옥중고초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았던것은 자기 령도자를 끝까지 받들어모시고 따르려는 억센 마음을 굳게 간직하였기때문이다.
철해고도에서도 당과 수령을 변함없이 굳게 믿고 따르는 억센 신념과 의지를 우리 자손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물려주는것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뜻깊은 새해의 이 아침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결의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게 된다.
비전향장기수 홍명기

